

# “벌써 아흔인데...생전에 일본 사과 받아 원통함 풀었으면”

## 강제동원 피해 양금덕 할머니의 설 바람

70여년 전 13살이던 소녀는 이번 설만 지나면 아흔을 넘는다. '망백'(望百)이다. 떨어지는 꽃잎만 봐도 웃었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엔 고단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겼다. 초등학교 6학년때인 1944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거기에서 학교도 갈 수 있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바다 건너 일본 나고야로 향했다. 소녀가 도착한 곳은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 매일 힘들고 가혹한 일만 강제로 해야 했다. 돈도 받지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멸시의 손가락질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친구들 하나둘 세상 떠나고 주름만 가득...“정부가 적극 나서야”  
광주·전남 98명 중 9명 생존...고령에 대부분 건강도 안 좋아  
시민모임 “어르신들 경험과 기억의 역사 전승할 방안 마련 중”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이야기다. 1931년생, 일주일여 뒤면 90번째 맞는 설이지만 양금덕 할머니는 도통 반갑지가 않다. 그토록 원하던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한 해를 흘려보냈다. 생각에 억울하고 원통하기만 하다. 꼭 살아서 사과를 받자며 굳게 약속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남아있는 동료들도 손으로 짚는다. 자신도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

본 정부 태도를 보면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양금덕 할머니는 “원통하기만 할까. 곧 음력으로 설을 쇠면 아흔 한 살이야. 살아서 사과받고 죽을 수 있을려나 몰라”고 했다. 할머니는 “다들 늙었어. 살아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빨리 사죄 받고 싶지만 한데...”라며 “힘 없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사죄와 배상이 되려면)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지”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 정부가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들

의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미쓰비시 머트리얼 등 일본기업 11곳을 상대로 강제동원된 광주·전남 피해자는 98명. 생존자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 박해옥·김성주·김재림·김영옥·양용수·정신영·주금용·조동선 어르신 등 9명에 불과하다. 건강도 좋지 못하다. 대부분이 요양원에 머물고 있으며 홀로 거동하는 게 불가능하다. 아흔을 앞두고 있는 생존자들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순탄치는 않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

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오히려 법원에 공사송달을 통해 내린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냈다. 이대로라면 설을 쇠고 새해를 맞아도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1~2년을 장담할 수 없는 생존자 분들을 위해 남아있는 소송에 집중하면서 더 늦기 전에 어르신들 경험과 기억의 역사를 전승하는 방안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공공기관 남녀 임금 비교 쉬워진다

21개 기관 임금 수준 6월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

광주지역 21개 공공기관 남녀 직원들의 임금 차이를 누구나 알 수 있게됐다. 다만, 애초 민간 기업들의 남녀 직원들 간 임금 격차까지 공개하려면 계획이 공공기관으로만 변경된 데 따른 아쉬움도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이달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21개 기관 남녀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파악, 6월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성 광주시장의 공약인 ‘양성평등 임금 공시제 조기 정착’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애초 공공 기관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려던 방침을 21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다. 민간기업 남녀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공개하는 데 따른 반발을 우려한 고용노동부 권고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이 반영됐다.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지수’로 본 지난해

광주지역 남녀임금격차는 63.3점. 전국 16개 시도 중 8번째다. 6월부터 남녀 직원들의 임금 차이를 알 수 있는 공공기관은 광주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환경공단·한국CES·광주전남연구원·남도장학회·관광재단 등 21곳이다. 이들 기관 중 성별 임금격차가 큰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거쳐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일각에서는 지역 공공기관들의 임금 격차만으로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남녀임금 격차 완화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광주여성민우회 김효경 활동가는 “광주시의 여성정책은 저출산 정책 쪽으로 편향된 경향이 있다”면서 “실질적인 여성들의 권위 향상 등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로 민간기업의 임금격차 공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떡국떡·한과 나눠요” 2일 오후 광주 북구 매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설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떡국 떡과 한과를 포장하고 있다. 이날 포장된 물품들은 매곡동 내 50여 세대에 전달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서 새벽 주택 화재...일가족 2명 숨져

새벽시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2명이 숨졌다. 2일 새벽 5시 1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2층 단독 주택(96.36㎡ 규모)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주택에는 일가족 5명이 살고 있었는데 1층엔 A(14)군과 엄마, 남동생 등 3명이, 2층엔 A군 조부모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날 화재로 집 안 1층에서 잠을 자던 A군과 2층에 있던 외할머니 B(72)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다른 가족들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 아빠는 타 지역에 있는 회사를 다니느라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남구청은 A군 가정에 생계·주거·의료비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직 검사, ‘약혼 오거리’ 배상 판결 불복 항소

“책임 부인 아냐...진정한 사과할 것” ‘약혼 오거리 살인’ 사건 당시 진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던 전직 검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 A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전남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직 경찰관 B씨도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최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 A씨

가 항소를 하기 전 전화를 걸어왔다”며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은 아님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도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한다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며 “이 사건의 과오를 가지고 해당 검사의 공직생활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썼다. 아울러 “검사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최씨와 가족들은 검사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씨는 16세였던 지난 2000년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사 A씨는 당시 이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나중에 진범으로 드러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씨와 가족은 이후 국가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 최씨 어머니와 동생에게 3억원 등 총 16억원을 지급하고, A씨 등이 전체 배상금 중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